



4》소프트웨어 단과대학 설립, 눈가리고 아웅?

PROBLEM	SOLUTION
평가방식	통일된 강의지표, 구글드라이브 활용 업로드
팀티칭	강의진행방식 보완, 강의평가 문제 예전
출결방식	U-Class, 구글 설문 거쳐 결국 호명식으로

8》국제캠 청소노동자 간접고용의 폐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가 임상교수인건비를 학교 운영비로 속였다며 법인이 제대로 학교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13일 청운관 앞에서 경희법인에게 학교운영비 160억을 지급하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진=이수형 기자)

“병원 돈을 왜 법인 통해서 주나” 총학, 160억 다시 달라며 법인 ‘비난’

법인전입금 스캔들, 사실은?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8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학교가 회계감사에서 160억 위반금액을 적발당했다’고 전하며 ‘경희학원이 160억 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고 비난했다.

총학이 ‘경희학원이 160억을 정상적으로 지원했다면 교양강의 6,400개를 열 수 있었다’며 ‘160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 상 실책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 상 이동을 ‘편법지출’로 표현한 것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160억, 정확히 161억을 의료원으로부터 학교에 전달한 경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인이 이 돈을 부풀리려는 술

수’라고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비리’, ‘(160억 원을)해먹었다’, ‘불법’ 등의 표현을 사용해 파장을 키웠다. 동시에 경희학원이 학교예산의 단 0.2%인 10억 원만을 책임지고 있다며 법인전입금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학이 제기한 이 ‘회계비리 스캔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총학이 ‘경희학원이 160억을 정상적으로 지원했다면 교양강의 6,400개를 열 수 있었다’며 ‘160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 상 실책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 상 이동을 ‘편법지출’로 표현한 것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160억, 정확히 161억을 의료원으로부터 학교에 전달한 경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인이 이 돈만큼의 지원을 더 해

줘야만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160억 원의 위법성과 횡령 가능성

다만, 총학이 문제제기 한 160억의 움직임은 사실이다. 경희학원은 의과대학 임상교수 월급의 절반을 법인회계를 거쳐 학교회계에 전입시켜왔다. 이는 교육부의 회계처리 지침과 다른 것이 맞으며 교육부 감사관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회계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지난해 경희학원이 학교에 준 전입금은 173억이고, 이 중 경희의료원이 경희학원에 준 전입금은 161억 원이다. 법인이 법적의무로 쥐어야하는 돈이 아닌데도 학교에 지원한 *경상비전입금은 12억 원 정도다. ‘왜 임상교원 월급 절반이 법인을 거치게 하는가’하는

질문에 경희학원 측이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이라고 답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회계감사를 진행한 대주 회계법인 측은 “회계비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회계를 간결하게 하라는 권고일 뿐, 160억 원에 관한 지적사항은 전입금 부풀리기나 비리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경희학원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경희학원 관계자는 “부속병원전입금 322억 원 중 절반을 법인을 통해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지적사항은 회계를 간결하게 하라는 지시일 뿐”이라고 마찬가지로 전했다. 또한 “이미 해당 지적사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학사 규정 개정으로 수업일수의 절반까지 출석 인정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우리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출석인정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에 대한 규정이 지난 1일 개정됐다. 기존에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유 즉, ‘공결 사유’로 인해 해당 학생이 출석을 못할 경우 수업 일수의 3분의 2 기간 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결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는 수업일수의 2분의 1로 축소 제한됐다.

단,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출석 인정일수의 제한에서 제외되며, 교

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조기 취업자와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에 대한 근거 또한 추가 됐다. 각각 12조 1항 7호와 8호를 추가하여 ‘졸업예정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와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를 출석인정 사유로 명시했다. 그간 별도의 시행 세칙이 제정돼 운영돼 오던 것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의 조항으로 이전된 것이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에 학사지원과 한상 계장은 “공결 사유더라도 수업에 절반 이상

을 결석했는데 성적인정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추가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공결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일수를 포함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성적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다. 학사지원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사유가 추가 된 데에 학사지원과 측은 “교육부에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안내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추가

한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도 휴강 시 학생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휴강 시 보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휴강 시 학생에게 미리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학생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학점취득방법 중 대학원 교과목 수강도 학점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 됐다. 마지막으로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에는 성적 정정을 할 수 없으나, 학생의 과실이 아닌 경우 부총장의 허가가 있을 시 성적 정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온로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북·미수교 이끌어야 한반도 비핵화
김민웅(교육대학원) 교수 ▶7면



시선

사설

무엇을 위한 SW융합 교육인가

우리학교는 지난 3월, 6.3대 1 경쟁률을 끊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최장 6년 동안 최대 1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학교는 사업을 통해 '미래산업을 주도할 V자형 융합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사업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도와 우리학교의 목표는 옳다. '4차 산업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은 둘째 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이전과 비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분명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산업을 주도한다는 우리학교의 준비 태도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내년 1학기 출범을 앞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시작부터 반쪽이다. 전자정보대학 소속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분리해 만드는 신설 단과대는 당장 전정대학·응용과학대학과 공간, 행정 조직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미 80%에 육박하던 전정대학·응용과학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가 가중될 것임은 자명하다. 새로운 교육에 불가결한 행정적 지원 역시 기존 전자정보대학과 다를 바 없다.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기업만 쳐다보고 있던 산학협력관 건설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무산됐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행할 주체인 전임교원이 단 두 명뿐인 상황이다. 빈자리는 타 학과 교수들의 겹임으로 채워진다.

비전공학생의 SW 활용 능력 함양을 목표로 내걸고 내년부터 도입될 'SW 기초교양' 역시 그 기형적인 형태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교생이 들어야 하는 기초교양의 취지에 부합할 만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거나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 후마니타스칼리지 배분 이수교과 과목 중 소프트웨어와 관련 있는 과목들을 SW 기초교양으로 지정하고 이를 이수케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바뀌는 것은 없다. 학교는 장밋빛 계획안으로 사업을 떠났다. 사업 선정의 결과로 지원금도 받았다. 이를 성과로 대내외에 공표했다.

그렇다면 학교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사업의 목표와 지원금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정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고작 실습실 기자재 몇 대 뿐이라면 사업 관련자들에게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고사양의 기자재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SW 활용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신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새로운 교육단위로서 신입생을 맞이할 것이다. 이미 수시모집도 마감됐다. 타 전공 2018학년 신입생들 역시 SW 기초교양을 필수로 이수해야 할 것이다. 2017학년까지가 수강했던 것과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 배분이수 강의를 말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백년을 바라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현재의 모습만을 미뤄보면 본말이 전도된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떠오른다. 다시 한 번 사업 준비 상황에 대한 진지한 재고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일 Peace BAR Festival 개최 촛불의 의미 돌아본다

미디어 여론동향 2017. 9. 4 ~ 9. 17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폐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어제까지가 수강신청 정정기간이었는데 오늘 폐강 문자를 받았다'는 글(#경희술_24165, 2017.9.8)의 글쓴이는 '정정기간 다음 날 폐강 통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반 친구는 아예 폐강 문자조차 못 받았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에게 무관심하고 계절학기를 들으라는 행정실의 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 글은 281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학생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계절 학기는 누구 짐 개 이름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장학



이 주의 주제 - 합리적 폐강기준 마련해야

그들만이 사는 세상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강을 원하는 전공강의보다 '열릴 가능성이 있는' 전공강의를 찾는다. 정작 원하던 강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해 곧잘 폐강되거나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수강신청 기간과 정정 기간, 두 번에 걸쳐 시간표를 짜야 한다. 그렇게 두 번이나 시간표를 짜고 나면 그들이 정말 원하던 강의는 공지사항 폐강공고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들에게 전공선택 과목은 선택이 아니다.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 열릴만한 강의를 찾다 보면 선택은 어느덧 부담스러운 필수과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는 170명이 넘는 정원을 가진 큰 학과도 있지만, 정원이 그 4분의 1도 되지 않는 학과도 있다. 정원이 소수인 과, 그런 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많지 않으나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는 점이다.

취재 도중 만난 그들은 누구보다 학과를 사랑했다. 기자가 하나를 물으면 둘을 알려줬고 더 궁금한 것은 없는지, 더 알려주기 위해 먼저 다가왔다.

학과의 어려움을 들려달란 기자의 요청에 A4 3장은 족히 되는 분량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자신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의 미래까지 걱정했다. 2014년도에 개정된 우리 학교의 전공과목 개설기준은 한 강의 당 최소 1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달하는 강의는 학칙에 따라 폐강된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학과는 한 학년 정원이 고작 30명 남짓이다. 강의가 원하는 만큼 열릴 수 없는 구조다. 매 학기 폐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행정실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들을지에 대한 고민 이전에 강의 개설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반복된다. 정원이 소수인 학과에 대한 전공과목 개설기준의 개선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그들 역시 타 전공 학생들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타 전공 학생들보다 전공 선택권이 현저히 낮다. 학교 측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규정'이니까 일방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번 학기도 수강신청이 끝났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가슴을 앓아야 했고 폐강 공고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행정실은 전화를 돌려가며 폐강을 막아야 했고 휴학생은 낭겨진 동기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듣지도 않을 강의를 신청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수는 "예외 없는 규정이 있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제는 소외된 그들의 어려움을 다시 조망할 때다.

총불에 담긴 시민의식을 돌아보며 전환문명 시대에 필요한 시민사회에 역할을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열린다.

대통령 주치의인 경희대 한방병원 김성수 병원장이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한방주치의' 김성수 경희대 한방병원장, 옥조근정훈장 포상/한국경제 외, 2017.9.8)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김 원장은 1986년부터 30여 년간 경희대 한의과 대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그는 경희대 한방병원장으로 재직하며 한의학 치료의 전문화, 과학화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오후 마감된 경희대 서울캠퍼스 수시모집 최종 경쟁률은 25.36대 1로 나타났다. (경희대, 논술전형 Hospitality경영 막판에 지원자 몰려/동아일보, 2017.9.13) 학생부종합전형은 18.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생물학과 경쟁률이 49대 1로 가장 높았고, 회계·세무학과의 경쟁률이 7.29대 1로 가장 낮았다. 논술 우수자전형은 72.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17.3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한의예과(인문)에 이어 의예과, 간호학과, 치의예과 등 의학계열이 강세를 보였다. 생물학과, 언론정보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등도 8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년을 짓밟다

세시봉

양윤주 (서울캠퍼스 뉴스팀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들도 줄줄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CJ그룹은 하반기 채용 인원의 약 20%를 학교나 학점 정보를 제외하고 뽑았다. 카카오 또한 블라인드 공채로 신입 개발자를 선발했다.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굵직한 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을 택했다.

직무 수행과 크게 상관없는 학벌, 나이, 연고 등을 빼고 개인 역량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다.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취준생의 82.2%가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정보를 채워 넣어야 했던 이력서를 뒤로하고 공정한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가 커져가는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전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그 기대를 한 순간에 절망으로 바꿔버렸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가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493명, 무려 95%가 국회의원의 청탁 등을 통해 부정 입사한 것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랜드 인사담당자는 하루에 200통도 넘는 청탁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날고 긴다는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절절한 부탁을 하니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들은 특정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여건을 조작하고, 채용절차 도중 전형방법을 바꾸고, 점수를 조작했다. 그래도 안 되면 합격자 수를 늘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정 기한다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한쪽에선 그들만의 채용

이는 수많은 청년들의 팜방울을 비웃는 비극이다. 더불어 채용비리의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 비극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취준생들에게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개인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블라인드'를 쳐 두고 '수저'로 다른 모습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매년 최악을 간신히하는 청년 실업률 통계를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절박하게 살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고 꾸미며 충실한 부품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취준생 중 노력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을까.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진다. 노력하라는 말을 듣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노력하지 않은 자의 승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가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은 그 길에 필요한 재료일지 모른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을 아무 배경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제2의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탄생하지 않기를, 그래서 모든 청년이 정의로운 결과를 받아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이수형 | 저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서울캠퍸스 곳곳에 '160억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총학생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수형 기자)

▶면에서 이어짐

경희학원의 경우 문제가 된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전출여부' 항목을 평가대상으로 두지 않는 회계법인도 많았다. 동국대 등 우리학교처럼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을 통해 전달하는 대학이 숱하지만 서울권 대학 중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정을 권고 받은 사학재단은 경희학원 뿐이다.

161억 원의 이동은 순간에 이뤄진 회계 상의 움직임일 뿐이라 경희학원이 161억 원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누군가 '해먹었을' 것이라는 종학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인의 배임으로 볼 수 있는가

경희학원은 '무책임한', '불법' 재단이라고 낙인찍힌 것에 억울하다고 말한다. 경희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이 70억 원 적자를 낸 것도 법인수입보다 학교지원 규모가 커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년째 수십 억 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학원은 지난해 정확히 71억 원의 적자를 봤다. 부족한 법인전입금 문제는 경희학원이 배임을 저질렀다가 보단, 경희학원의 수의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

경희학원의 전입금지원은 분명 감소세다. 경희학원이 지난 15일 양 캠퍼스 종학과 우리신문에 제공한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부속병원전입금을 제외한 경상비전입금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경상비전입금은 2007~9년 40억 원 내외, 2011~15년 20억 원 내외를 전전하다 지난해에는 12억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경희학원은 2016학년도 기준, 법정부담전입금 152억 중 95억만을 학

교에 지원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 교원과 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경상비전입금과 달리 법인이 대학에 지원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러나 경희학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부담전입금의 62.5%만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은 교직원의 연금 등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학교법인 재정상황에 따라 학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달고 있다. 더욱이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5학년도 기준 전국 153개 사립대학 중 22.9%인 35개 대학만이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법정부담전입금을 위법행위로 볼 순 없지만, 법인의 대학지원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회사 수입을 포함한 경희학원의 운영수입은 2016학년도 기준 247억 원에 그친다. 법인 입장에선 수입으로 계산된, 논란 속의 부속병원전입금 161억 원도 포함된 금액이다. 사실상 수입이 아

닌 이 돈을 빼면 86억 원이 법인 수입의 전부인데, 법정부담전입금 104억 원과 법인 운영비용 등을 빼면, 위 경희학원 관계자의 발언대로 지난해 경희학원은 71억 원의 적자를 봤다.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10

년 동안 수익대비 대학에 전출한 돈이 259억 원 많다.

“회계비리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 없다”

결론적으로 경희학원은 종학이 주장하는 160억을 지원할 강력한 의무가 없으며 법정부담전출금도 채 부담하지 못하는 현재로선 그럴 형편도 안 된다. 경희학원은 지난 15일 '부속병원전입금 개념이 없던 과거부터 경희학원은 부속병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대학으로 보내왔다', '십 년째 수익보다 많은 전출금을 대학으로 보내고 있다', '전출금 확대를 위해 수의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양 캠퍼스 종학과 대학주보에 발송했다.

법인의 답변서를 받은 종학은 현재 "회계비리라는 말은 한 번도 쓴 적 없다"며 "160억 원을 법인이 주는 것처럼 속인 것에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학은 "아직 정작 총장님께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총장이 경희학원의 실소유주이니 총장이 답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속병원전입금 : 같은 학교법인에 부속된 병원이 학교에 제공하는 전입금

*경상비전입금 : 학교법인이 학교에 자의로 주는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 법인이 학교에 제공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전입금

비리라는 것은 재산이 유출되고 개인이 이익을 봤을 때가 비리다.

인건비로 쓸 돈을 금액 맞춰서

줬을 뿐이다

-대주회계법인 경희대 담당자

“

2017-2학기 경희꿈도전장학금 신청 안내

1. 목적

-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사회진출분야 탐색, 진로설정 등 심도있는 자아성찰 계기 마련
-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물 도출을 통한 학생융합설계능력 함양
- 교수·학생 간 실질적지도 계기 마련

2. 지원대상

- 2017-2학기 현재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규정 위배자, 2017-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가계문란 정도 제한없이 신청 가능
-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 가능

3. 도전분야

- ① 창업 / ②봉사 / ③팀방 / ④연구 / ⑤기타
- ※ 분야를 택일하여 정학신청
- ※ 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

4. 선발인원

- 50명(팀내외)
-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정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선발방법

- 경희꿈도전장학 운영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평가 실시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야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 선발
-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경희꿈도전장학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향 목
서류평가 (100점)	활동계획서 평가(90점)
	교수추천서 평가(10점)
면접평가 (100점)	학생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20점)
	계획의 충분도 및 주진의지(30점)
면접평가 (100점)	실무경험과 활용방안(30점)
	사회기여도(20점)
6. 장학금 지급액	1인/팀당 400만원
	· 장학금 선발 시 300만원 선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조과지급 가능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리더에게 전액 지급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7.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7. 9. 18.(월) 09:00 ~ 2017. 10. 13.(금) 17:00 [3주간]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 1)온라인신청: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용자신청→2017-2학기 경희꿈도전장학금
- 2)서류제출
- 가) 제출기간: 2017. 10. 10.(화) 09:00 ~ 2017. 10. 13.(금) 17:00
- 나)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다) 제출서류
- (1)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물)부
- (2) 경희꿈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첨조)부
- ※ 활동계획서는 동기간내 janghak@khu.ac.kr로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함
- (3) 경희꿈도전장학 지도 교수 추천서(첨부양식 2첨조)부

8. 선발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장학금 신청	2017. 9. 18.(월) 09:00 ~ 2017. 10. 13.(금) 17:00	
2) 장학설명회	2017. 9. 19.(화) 18:00, 청운관 409호	
3) 서류제출기간	2017. 10. 10.(화) 09:00 ~ 2017. 10. 13.(금) 17:00	
4) 면접평가일	2017. 10. 25.(수)	시간 및 장소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5) 선발결과 발표	2017. 10. 30.(월) 10:00	장학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6) 1차 장학금 지급	2017. 11. 10.(금)	

9. 장학금 의무사항

- 기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나. 최종 결과보고회 참석 ※ 우수 결과물 제출자는 별도 시상 예정

- 다. 도전기간 종료 후 장학금 간담회 참석 및 장학수기 작성

내 용	일 정	비 고
꿈도전 기간	2017. 11. 10 ~ 2018. 7월	
중간보고서 제출일	2018. 3. 30.(금) 24:00	janghak1@khu.ac.kr로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일	2018. 7. 27.(금) 24:00	janghak1@khu.ac.kr로 제출
결과발표회	2018년 8월중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10. 유의사항

- 꿈도전 기간 중(2017-2학기, 2018-1학기)에는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함
- 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할 경우에는 우수한 장학금을 반납해야 함

- ※ 단, 복학하는 학기에 중간·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발표회에 참석하여 최종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장학금을 재지급함

11. 기타문의

· 정학팀 961-0045~0046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획일적 폐강기준으로 소수학과 ‘진통’

신정인 기자 sjii0201@khu.ac.kr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9개의 폐강강좌 공고문이 게시됐다. 우리 학교는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폐강기준을 적용해 전공과목은 15명 미만(전공과목 중 전체영어 진행강의는 10명 미만), 교양 및 기타 과목은 신청자가 20명 미만이면 강의가 개설되지 않는다. 이전에 10명 이상이 신청하면 수강 가능했던 전공과목 개설기준과 비교했을 때 5명의 수강자가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상황된 폐강 기준은 소수학과에 특히 치명적이다. 한 학번 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과의 경우 매 학기 폐강위기에 놓인 강좌들을 개설하기 위해 학과 행정실별로 다양한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등록 후 휴학을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강위기에 처한 강의의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방법이다. 휴학 예정인 학생이 등록금을 내면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통해 강의 출석부상에 이름을 옮길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결국 수강정 기간 동안 출석부상에는 이름이 올라가지만, 실제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보통 학과 차원에서 휴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생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사정으로 이번 학기 휴학을 결정한 A 씨는 "9월 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학과 행정실이었다"며, "특정 수업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고학년 학생 대상 수강을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신입생을 비롯한 저학년 학생들이 폐강 위기 과목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3학년 과목을 수강하는 식이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B 씨는 "학과 커리큘럼 상 선수강 과목이 있음에도 폐강을 면하기 위해 후수강 과목을 먼저 수강했던 적이 있다"라며, "수업내용이 어려워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성적 취득에 있어서도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러한 커리큘럼의 붕괴는 한 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미 1학년 때 고

학년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3, 4학년이 되면 다시 해당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져 수강하려는 수요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저학년 학생들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본인 학년의 강의가 폐강위기에 있으면 자신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이유를 서술해 학과에 제출하는 방법도 폐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학생들은 '수강 불가 사유서'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한다. 이는 이미 폐강이 예상되는 강의이지만 자신은 왜 해당 강의를 신청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각자의 상황을 서술한 사유서다. 이것이 제출되면 학과 행정실 차원에서 이를 취합하여 강의 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학사지원과에 보내는 식으로 폐강을 막는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과는 "폐강대상 강의이지만 출업대상자가 있거나 학과 사정에 의해 강의를 폐강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며, "음악대학의 경우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인한 강의의 폐강이 잦은 것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음악대학 작곡과에 재학 중인 C 씨는 "학과 사정에 맞지 않는 폐강기준 때문에 학생들 과 학과 행정실 모두 소모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다"라며, "듣고 싶은 강의가 없어 질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학

보도

“혁신적 변화보다는 학생요구 수렴에 방점”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신임 학장에 김성수 교수가 임명됐다.

(사진 = 최명규 기자)

후마 신임 학장 인터뷰 - ② 국제

설지연 기자 jy0622@kn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학장에 김성수(우주과학)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이상과 현실을 고려해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학생들이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낄 교양 교육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학장은 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와 학교 간 갈등에 대해서 서울캠퍼스 후마 이영준 학장과 비슷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학장은 “결국 학교와 교수회의 모두 교육의 질 향상을 바라는 것은 똑같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후마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학장은 “후마는 아시아 10대 교양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양대학이다”라며 “혁신적인 변화, 재도약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생들의 요구와 불편을 받아들이는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배분과목의 개설, 강좌 수 증설 같이 세세한 부분에서의 개선은 있겠지만 거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부 계열에서 제기하는 ‘교양 이수 학점이 높아 전공 역량이 약화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학장은 “후마 이수 학점은 외국대학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고 국내의 다른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도 전혀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전공 교

수님들 입장에선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알겠지만 전공과 교양 이수 학점의 비율은 지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학장은 이공계열의 교양 과목을 늘리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학장은 “인문계열에 교양 과목이 치중돼 있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백방에서 문명까지’가 탄생했듯이 교양이 인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문과목과 이공과목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내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라 밝혔다.

특히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필수 교양으로 지정될 SW기초과목에 대해 김 학장은 “교양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후마 출범 당시에는 인문학 교육에 중점을 뒀지만 소프트웨어 지식이 필수적인 지식이 됐다면 이를 교양이라 여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W기초과목 신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 교수와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김 학장은 “교양 과목 2개가 새로 개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학장은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양 과목을 재미있게 만 생각하지 말고 학생 자신을 위해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발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후마의 중핵 교과들을 통해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이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를 넘는 장기연체 … 전공도서 씨가 마른다

안나연 기자 yeonnaahn@knu.ac.kr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장기연체된 도서는 203권에 달한다. 연체된 도서들의 반납률은 지난 4월에는 19.2%, 5월에는 21.2%, 6월에는 20.3%, 7월에는 22.2%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반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가장 많이 연체된 〈경영학 원론〉은 경영학과 전공 도서로 463일 동안 연체되었다. 그 뒤를 이은 〈스커트 팬츠〉, 〈어페릴메이킹>여성복 재킷〉 역시 의상학과 전공도서다. 각각 330일 동안 연체되었다. 물론 모든 장기연체 도서가 전공도서인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가장 오래동안 연체된 책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로 순수 문학 도서였다. 그러나 3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가장 많이 연체된 도서가 전공도서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나 의학도서관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연체된 책은 〈생약학〉으로, 약과대학 전공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서적이 대학생들의 용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연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주천(무

역학 2017) 씨는 “전공책을 다 사니 12만 원이 넘는다. 이는 이를치 아르바이트 일당에 해당한다”며 부담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물론 책에 쓰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달치 휴대폰 비용을 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새학기가 되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보연(간호학 2017) 씨 역시 “전공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야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며 “필수로 구매하는 서적인 만큼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기영(문화정보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양심적인 대출을 호소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도서관 규정을 통해 비양심적인 장기 연체를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지정도서’ 제도를 언급하며 “전공 도서를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이 됨과 동시에 장기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도서제는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교재를 교수의 요청에 의해 정해놓으면 3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만 대출 가능하며 연체 시 시간당 백원의 높은 연체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연세대는 지난 2000년부터 지정도서 제도를 도입했다. 연세대에서 현재 지정도서로 등록된 책은 415권이다. 연세대 이용 자통합서비스팀은 “도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 경우 모든 연체도서에 대해 연체일과 같은 기간만큼 대출과 열람실 및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30일 동안 연체한 경우, 책 반납 이후에도 30일 간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장기연체를 해도 30일이 ‘최장 도서관 이용 정지 기간’인데다 연체료가 2만원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아 전공도서에 대한 장기연체가 빈번하다. 물론 도서관 측에서는 문자 및 전화로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자는 재학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흥유진 직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학생 개개인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전했다. 흥 직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기연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W교양 ‘조심스레’ 전교생 필수이수 추진

(2018 학번 이후)

최명규 기자 gyumyeong@knu.ac.kr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SW중심대학사업단)은 내년 신입생부터 전공에 상관 없이 ‘SW기초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W기초교육으로 내년 신입생은 SW기초교과 6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SW기초교육은 기존 배분이수 소프트웨어 관리 교과목들과 추가로 개설되는 2~3개의 배분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SW기초교과 필수이수에 따라 2018학년 이후부터는 배분영역 선택에서 추가 고려 사항이 생긴다. 현재 배분이수교과는 7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SW기초교과가 있는 영역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역 선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다.

SW기초교과는 컴퓨터실습이 있는 SW코딩과 그렇지 않은 SW교양으로 나뉜다. SW코딩과 SW교양 이수 조건은 각 단과대

학별로 정해질 전망이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 단장은 “신입생들이 SW코딩과 SW교양 중 어떤 것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마다 다르다”며 “차후 단과대학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기초교과 개설은 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이다. 조 단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전공생이 본인의 전공과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단장은 SW기초교과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전교생이 들어야 하는 수업인 만큼 연간 5,200명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1학기에 1,559명의 학생이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을 이미 수강했다”며 “서울캠퍼스 2과목, 국제캠 3과목만 추가 개설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SW기초교과는 소프트웨어 교양 전임 교수 서울·국제캠 각각 2명, 산학협력중점 교수 4명, 학술연구교수 4명과 컴퓨터공

학 전임교수가 담당할 계획이다. 조 단장은 “시간강사 채용과 온라인 강의 개설로 강의 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W기초교과는 그 대상이 전교생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주된 논의 사안이 될 전망이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한상 계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9월 말 후마니타스칼리지 요청으로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양교육과정개편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이에 대한 개설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김성훈 학술연구 교수는 “SW기초교과에 대한 교과과정 편성 등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는 ‘컴퓨터적 사고와 문제해결’ 2학점을 필수교양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04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3,980명의 학생을 수용했다. 교수 14명이 강의담당 했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7.09.11.(월) ~ 10.20.(금)
- 접수기간 : 2017.08.14.(월) ~ 2017.09.08.(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09.05(화), 09.06(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09.05(화) 1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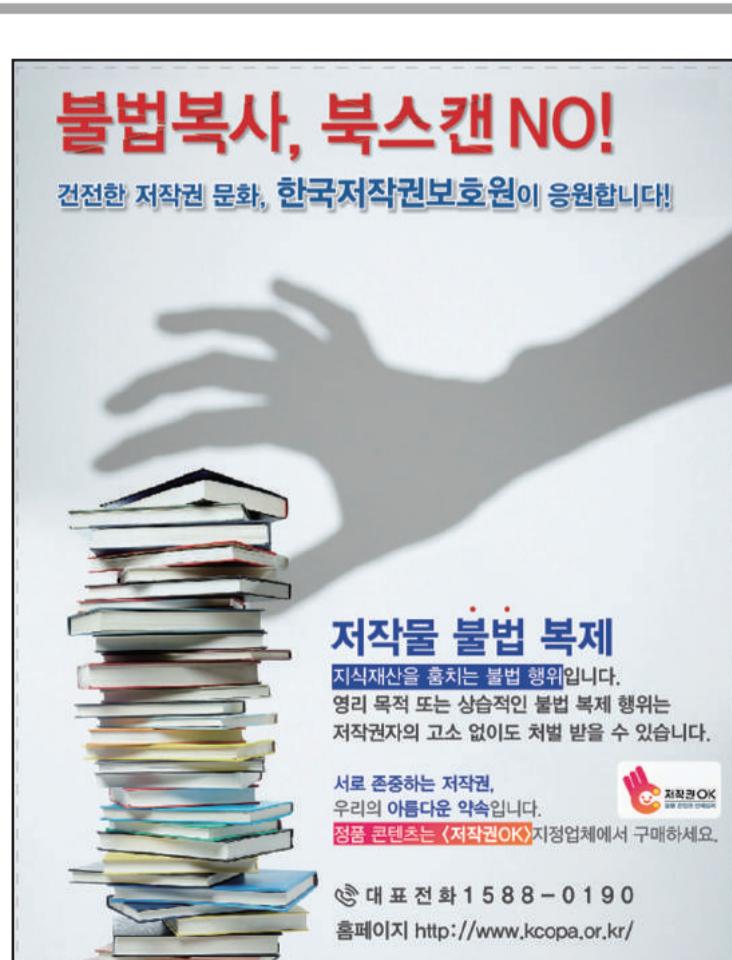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30~20:00 (화)	
	수강료	Ted Talk	Business Special Lecture Screen English Academic Writing Workshop	Screen English	
		150,000원	12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중급2/ 고급	초급2/ 초급3/ 고급1	초급1/ 중급1/ 고급2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 (화, 목) 07:45~08:45 오전반 (월, 수) 07:45~08:45	오후반 17:30~19: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2	초급2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9:00~20:20 (월, 수)	오후반 18:30~19:5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수강료		120,000원		
베트남어	시간		오후반 18:00~19:20 (월, 수)	오후반 18:00~19:2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불법복사, 북스캔 NO!

건전한 저작권 문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응원합니다!



저작물 불법 복제

지식재산을 훔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복제 행위는 저작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저작권,
우리의 아름다운 악속입니다.

정품 콘텐츠는 저작권OK 지정업체에서 구매하세요.

대 표 전 화 1 5 8 8 - 0 1 9 0
홈페이지 <http://www.kcoba.or.kr/>

‘핵무장’ 자기방어로 인식하는 북한 북·미수교 이끌어야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 칼럼



김민웅

교육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무장체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실은 강력한 대응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만일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로 가는 과정에서 북의 핵무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매우 비상한 조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말했듯이 “북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 힘” 있다고 대응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북의 핵 무장 체제 강화의 1차적 본질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점을 알면 해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통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다. 그러한 방식은 도리어 북의 핵무장의 정당방위적 절실성을 확신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비핵화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핵무장의 문이 열린 것은 그 사이에 평화적 해법에 기대를 걸어도 통하지 않았던 상황이 존재한 결과다. 미국에게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요구했던 것은 북이었고, 이를 거부하고 군사적 소멸 대상으로 북을 대했던 것은 미국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 입증 가능한 ‘사실’이다.

해법은 북한과 미국의 수교

가령 2000년 클린턴 정부 당시 북의 2인자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잇따른 올브라이트의 방북, 그리고 북미 공동선언은 그간의 꾸준한 대화노력을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수교 직전의 상황을 뜻했다. 하지만 이는 이후 들어선 부시정부에 의해 좌절된다. 수교논의의 대상이었던 북은 그간 미국과 진지하게 서로 오갔던 이야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와 수교를 위한 대화를 하는 과정은 매우 길 것이다.

(사진=중앙일보DB)

와는 달리, 좀지에 미국에 의해 박멸되어야 할 악의 죽이 되고 만다. 북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

세계 최강국의 적대적 군사정책 앞에 놓인 국가가 평화적 대화의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고 여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다. 압박에 굴복을 하거나, 이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확보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전자를 원했고, 북은 후자를 택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진 본질은 여기에 있다. 당연히 이는 핵무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도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작전(Operation Plan)”라는 이름의 점령정책과 함께 정권교체와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까지 준비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지침이 수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 비중을 가진 자기방어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핵무장 자체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까? 더군다나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좌절시킨 아들 부시 이후 미국의 핵 태세의 기본 전략은 “핵 선제공격(nuclear pre-emptive strategy)”이며 참수작전은 상대방 지휘부에 대한 핵공격과 지도부 제거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해법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북의 인식과 관점, 태세를 이해하는 작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제 아무리 강력한 압박과 제재라고 할지라도 체제의 생존을 내어주는 방식은 항복하기 이전에는 결코 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질문은 북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끝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최종 목적인가 하는 것이다.

전쟁보다 나은 평화정책

해법은 확실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쪽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직접 대응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의 실제적 방향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핵무장과 이에 기초한 전략은 해체되어야 한다. 결국 상호 위협이 될 조건을 함께 소멸시키면서 평화와 수교를 위한 대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 외에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는 남과 북 우리 민족 전체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並行)은 중국의 시진핑만의 제안이 아니다. 최종 목적지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다. 동북아시아의 적대구조는 이로써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상대에게만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대화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만들기 위한 돌파형 대화도 있다.

평화협정과 북한-미국 수교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평화정책이다. 북한과 미국, 일본의 수교는 한반도 교차외교의 균형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이런 목표와 의지가 분명할 때 남북대화도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평화협정 논의의 시 북이 제기할 미군철수 문제는 과거에도 이미 남북이 나눈 구상대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경을 통해 풀어갈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다. 핵무장 해체는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

매우 긴 여정이다. 그러나 전쟁보다 절대적으로 낫다. 더군다나,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우리 학교의 평화정신 아닌가?

※외부 필자의 원고는 대학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마당

김리나
(언론정보학 2016)



20대는 어디에 누워야 하는가

작년 가을 자취를 결심했다. 통학길 숨 쉴 틈조차 없이 어떻게 든 몸을 우겨 넣는 ‘지옥철’을 하루에 2시간씩 타는데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집에서 늦게라도 출발하는 날에는 종일이 불안감으로 범벅되는 경험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랬듯 냉혹했다. 갓 대학에 입학한 20대가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리 만무했다. 잠깐 인터넷 검색만 했을 뿐인데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이 보기만 해도 어려운 용어들이 한 가득 등장했다. 중고등학교 때 ‘볶음밥 당근을 몇 센티미터로 썰어야 하는지’ 배웠던 기억은 있는데,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항목인데 대체 누가 알려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려운 용어들을 어찌 넘어오니 더 큰 진입장벽이 있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교통비는 줄지만 비싼 월세 때문에 티도 나지 않았다. 여기에 통신비 내고 생필품 구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전공서적들을 구입하는 학기 초나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시기는 말할 것도 없었다. 문화생활 같은 건 고려할 여력도 없었다. 보증금으로 맡겨둬야 하는 목돈까지 헤아리니, 자취비용 전반을 내 알바비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임이 명확해졌다.

개다가 자취를 알아보며 주변의 자취생들과 대화하다 보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았다. 굽이굽이 골목진 자취방 주변의 환경 때문에 동아리나 학과 모임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할 때에는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찬물밖에 나오지 않아 집 주인에게 알렸는데, 몇 번을 말한 뒤에야 해결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자취생을 반겨주는 건 냉기나 감도는 작은 방과 쌓인 빨랫감,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 같은 것들뿐이었다. 와중에도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에는 걱정하실까 하는 염려에, 잘 지내는 척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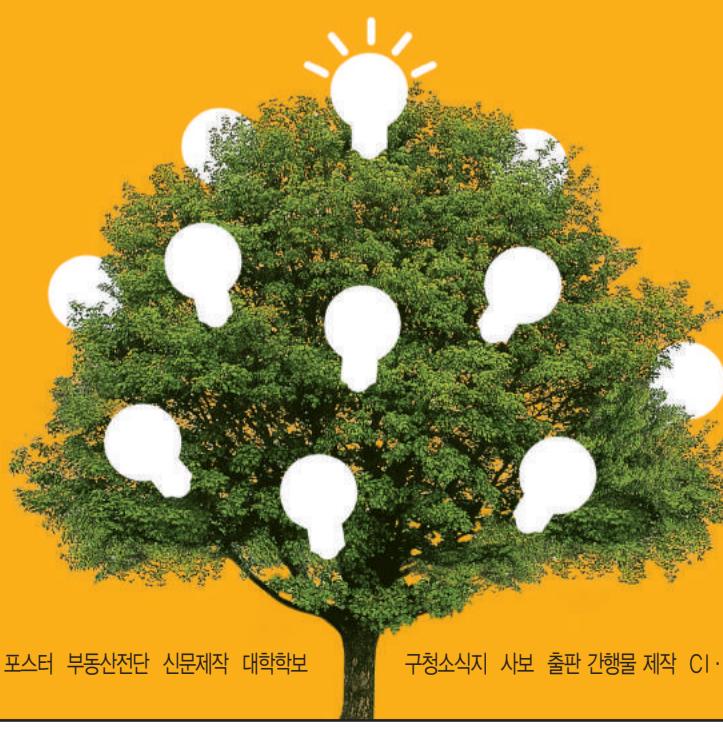
복잡한 계약 절차들, 그 너머의 경제적 부담들, 그리고 그 너머 혼자 살며 겪는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말로만 듣던 세상물정, 정말 이렇게 배우는 건가 싶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지만 지평선 하나에 대한的好奇心가 사무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청춘들의 현실이 이렇게 고민고민한데, 열심히 살면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펜을 내린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기획

국제캠은 쑥 빠진 자회사, 미완의 퍼즐은 맞춰질까

숙제 남은 '청소' 직고용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scene 1. 경희대학교 자회사 대표와 민주노총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단체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청소노동자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제로 계산해 주십시오. 월급제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분회 백영란 분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학교 자회사 대표로 참여한 케이에코텍 조진원 대표가 나섰다. “학교 사정도 고려해주시죠. 호봉제 도입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백 분회장의 얼굴은 밝았다. “그래도 소통 과정이 예전보다는 원활해졌어요.”

#scene 2. 용역업체 대표와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국제캠퍼스(국제캠) 지부 심규갑 지부장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단체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시급 인상해 주십시오.” 심규갑 지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용역업체 두레시닝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희가 학교에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런데 학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협상도 학교와 용역업체가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심규갑 지부장의 얼굴은 어둡다. “협상을 아무리 한다 해도 학교가 안 들어주면 그만인데 어떡하니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양 캠퍼스의 이러한 차이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법적 사용자가 다른 간접고용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간접고용과 직고용이 무엇이기에 청소노동자들은 그토록 ‘직고용’을 원하는 것일까.

‘간접고용’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제점으로 다가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불안이다. 2011년 청소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싸우다가 흥의대로 부터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회혁신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임주환 변호사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약을 매년 다시 한다고 해서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일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투명 인간’ 같은 존재다. 그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는 학교와 같은 원청에게 보이지 않는



“
서울, 청소노동자 직고용했지만
국제는 배제된 반쪽 해결책
:

고용·임금·소속감 문제는 여전
”



다. 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학교는 책임에서 자유롭다. 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직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순간 ‘불법도급’이 되 버린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입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를 불러 사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것 밖에는 없다. 법적 책임이 없으니 그들이 처한 부당한 사태를 외면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은 청소노동자에게서 ‘희망’을 뺏어버린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다고 하지만 근속년수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쪽자리 승계다. 통상 2년 단위로 새로 계약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근속년수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속년수 미적용은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임금인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하루 8시간 동안 학교에서 일하지만 그들의 소속은 학교가 아니다. 구성원을 위해 일하지만 여전히 ‘타인’인 것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진해 교수는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계약 시기가 되면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약체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용역회사라는 이중 구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노동자들의 소속감을 낮추고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에 공감한 우리학교

는 2013년 ‘미화용역직 고용형태 개선 연구 TF’를 시작으로 2015년 희망제작소와의 MOU 협정을 거쳐, 최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까지 이뤄냈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대학 중 최초로 ‘자회사’를 세워가면서까지 직고용을 했다는 것은 학교의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가 확실한 것을 의미 한다”며 “원청 사용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을 학교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서울캠의 직고용 사례가 찬사를 받는 동안 국제캠은 직고용 논의의 밖에 있었다.

국제캠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던 관리체계이다.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는 특성상 각 캠퍼스의 사정에 따라 운영된다.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기 힘들어 업무가 통합되지 못한다. 행·재정혁신지원단 이종성 행정과장은 “작년 거버넌스 개편 때 양 캠퍼스 관리팀 또한 통합에 대해 검토했지만 캠퍼스가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특징 뿐만 아니라 시설의 경우 캠퍼스 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체계 통합이 어려움을 밝혔다. 국제캠 총무팀 박수인 계장 역시 “자회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캠퍼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다. 지난 9월 1일자로 기존 국제캠 청소용역업체 두레시닝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다

른 용역업체와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이 끝나는 2년 동안은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소속을 바꾸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캠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용역업체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현재 계약이 끝나는 2년 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새로 출범한 자회사의 안정화 문제이다. 부산대, 전남대 등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학교들은 청소노동자들을 학교에 직고용하는 형태를 취했다. 반면 우리학교는 대학최초로 자회사를 도입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모델이 없다. 때문에 우리학교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회사 케이에코텍 조진원 대표는 “가깝게는 근로조건 개선부터 멀게는 대학과 자회사 경영진, 청소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협점을 만들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임금인상을 잘 끌어야 국제캠까지 직고용을 넓힐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학교와 비슷한 모델은 있다. 2013년 서울메트로공사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환경’을 100% 출자로 설립했다. 서울메트로공사(현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1~4호선 140개 역사가 모두 현장이지만 ㈜서울메트로환경 안규엽 본부장은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팀장 1명 당 2개 역, 60명의 청소인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안 본부장은 “현장 관리에서 지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방법을 강구해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회사 직고용으로 전환할 당시 기존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남아 있었던 점도 우리학교와 유사하다. 1~4호선의 미화작은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고용 전환이 가능했지만, 5~8호선 미화작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다. 안 본부장은 “만약 5~8호선 청소노동자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한꺼번에 직고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학교의 경우 서울캠 청소노동자들이 직고용으로 전환되던 7월 1일 당시, 국제캠 또한 용역업체와 계약이 두 달 남짓 남아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도 이들의 고용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지점이다.



2018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admission.dgist.ac.kr

전형일정			
구 분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29(목)~7.13(목)	10.12(목)~10.26(목)	12.14(목)~12.28(목)
면접 대상자 발표	7.27(목)	11.9(목)	'18.1.11(목)
면접 평가	8.7(월)~8.14(월)	11.13(월)~11.21(월)	'18.1.15(월)~1.22(월)
합격자 발표	8.28(월)	12.4(월)	'18.2.9(금)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admission.dgist.ac.kr

전공별 모집과정

- 신물질과학전공
-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 뇌·인지과학전공
- 로봇공학전공
- 뉴바이오로지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

장학혜택 및 특전

-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지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전공 오픈랩
9.23(토) 12:00~17:00
DGIST 컨설리언스풀 L29(대강당)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로 세틀업 서비스 운영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비 지원 및 간단한 음식, 기념품 제공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DGIST 서울총무센터(서울 종로 무교로 32 호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님의 소개모임 및 면담 운영(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